

## 環境의 問題

성기수(KIST 시스템 공학센터소장)

전자신문 89.12.25.『論壇』

마시는 물이 깨끗한가의 문제와 라면이 먹을 만한가의 문제로 온국민을 걱정시킨 소동이 한 번씩 지나갔다. 우리의 허파로 드나드는 공기조차 대도시의 경우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도도 가끔 나오고 있다. 라면의 경우, 문제된 쇠기름을 植物性판유로 대체한다고 했으니까 해당문제는 해결된 셈이다. 食品安全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위한 감시기구의 출현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물과 공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구창설 정도로 사태가 호전될 수도 없는 심각하고 어렵고 長期的인 문제이다. 우선 염려되는 것은 지난 여름 食水 소동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의 수도물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석, 공개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사실과 그후 팔당 수원지 인근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허가됐다는 사실이다. 골프장이 농약사용으로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이 공기를 나쁘게 한다는 것에도 유의해야겠다.

골프장 건설로 森林이 대규모로 훼손되고, 따라서 신선한 酸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며 大氣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된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인근도시의 酸素부족에 기여하고 멀리는 地球 전체에 온실교화에 一助하게 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직 높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실정인데, 최근 先進國에서는 國家원수들간의 만남에서 환경문제가 매번 거론되고 있고, 지난번의 유럽회의 선거에서 환경문제를 최중요시하는 綠色黨이 크게 진출하여 政治勢力化하고 있다.

한국은 가난의 한풀이인지 아직 보다 큰 집, 보다 큰 자동차를 추구하는 추세인데, 소득수준이 4배 이상인 일본 사람들의 집이 더 작고, 파리의 상들리제를 달리는 작은 차들이 서울 세종로의 중형차들보다 검소해 보이고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며 매연도 덜 뿜어내니 「작은 것

은 아름답다」가 집과 자동차에도 해당되는 셈이다. 집과 차가 작고 봐야 나무들이 설자리가 생겨서 綠地帶와 公園이 넓어지고 상대적으로 도로가 커지게 마련이다.

지구상에 인류역사보다 오랜기간 棲息했던 공룡들이 환경변화로 전멸당할 때 미니 공룡이랄 수 있는 도마뱀들이 살아남은 것을 본다면 「작은 것은 살아 남는다」가 「작은 것은 아름답다」에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지구상에는 원래 식물이 먼저 나타나서 많은 산소를 대기중에 방출한 연후에 동물의 서식이 시작되었고, 그후 동물들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하여 다시 산소로 바꾸는 共生관계가 균형을 유지해 왔는데, 현대에 와서 식물의 대학살이 산업단지·주택단지·골프장·농경지 확보 등을 이유로 南美的 아마존 유역을 비롯해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어 인류와 동물세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사막 한 가운데에서 동굴벽화와 거대한 나무밑둥치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무분별이 올창한 삼림과 동물의 낙원을 풀 한포기 못자라는 폐허로 변모시킨 증거라 하겠다.

건강한 地球는 적정 人口와 적정 森林을 필요로 하는데 그 균형이 먼저 깨어지는 지역과 민족이 먼저 황폐화, 패망하게 된다. 三千里 금수강산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보전하는 일은 우리민족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서 소나무와 사람 사이의 균형이 무너져 산이 온통 벌거숭이가 된 적이 있는데, 1940년대, 인구가 남북 합쳐 삼천만을 접근할 때였다. 그후 무연탄과 수입한 化石연료와 수입한 우라늄 원자력의 사용으로 회복된 푸른 산들이 지금 6000만이 넘는 인구와 대치하고 있는데 나무가 계속 사람에게 밀리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적정 인구의 上限은 2000만 정도라 할 수 있는데, 4000만이 일시에 이민을 갈 수도 없고 결국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환경보전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하다. 물자절약, 모든 것의 경량화·소형화, 모든 것의 에너지 효율개선, 폐자원활용, 알콜자동차, 전기자동차... 에 대한 연구와 실용화 노력은 이 땅에 子孫萬代를 보전하기 위한 時間과의 숨가쁜 싸움이라 하겠다.